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종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온 교회 안에 전도 열기로 가득 차 -교회학교 학생 1만명 채울 터-

지난 1월부터 전도특별 노방전도가 시작되고 교구별 전도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이제는 교회학교 부서별 전도가 불붙기 시작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70인 전도대원들을 지원하는 전도회, 선교회와 교구가족들이 추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모두가 오지에 파송된 선교사와 같은 원시보다 귀한 성도로 비쳐졌다.

1월27일 주일에는 고등부(부장 오광환 집사) 학생 35명이 성경공부 후 대치동을 3개 지역으로 나누어 노방전도를 실시했다. 올해 교회학교 학생 1만 명 돌파를 기도제목

으로 내세운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기 장로)는 2월7일 교육위원회 모임에서 각 부 전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독려함으로 2002년도 서울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라는 영광스런 이름을 갖게 되었다. 비전2020운동이 제시한 2020년까지 민족 75%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비전은 구호로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농어촌·미전도 종족 전도 그리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전도 무엇보다 북한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단기선교팀 준비 가동된다

-몽골에서 8월5일(월)부터 10일간-

오는 8월5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2002 단기선교팀이 몽골에서 활동케 된다.

선교위원회(위원장 김영준 장로)가 지난 2월6일 당회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몽골인구의 94%가 라마교 또는 미신 숭배자로서 기독교인은 약 7,000명 정도로 0.3%에 해당한다고 한다. 1990년 최초의 교회가 설립된 이래 93년도에는 10개의 교회로 증가되었고 계속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이번 단기선교팀에 참가할 대상은 서울교회 등록교인으로 자비량 전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선착순 30명을 선발케 된다.

몽골까지 왕복여비는 오늘 현재 55만 3천 원으로 알려졌다. 지원자는 사무국또는 선교위원회(지도목사 이규경)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계선교를 위한 중보기도팀 가동된다

-전도회와 권사회 및 스데반회-

우리교회 선교위원회(위원장 김영준 장로)는 세계선교를 위한 중보기도팀을 가동키로 했다. 우선 10차에 걸쳐 우리교회 KIMCHI세미나에 참가한 나라들을 위한 기도를 하기로 하고 북한을 추가키로 했다. 해당 기관과 국가 이름은 별표와 같다.

빌 립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안드레	폴란드,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베드로	일본,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리위
바 울	모리셔스, 태국, 필리핀, 인도아
엘리아	스리랑카, 불가리아, 보츠와나, 부룬디
모 세	카메룬, 차드, 에티오피아
아브라함	가나, 가봉, 케냐, 중국
도르가	싱가포르, 홍콩, 타이완
루디아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르완다
빅 뵈	스왓질랜드, 탄자니아, 우간다
마리아	잠비아, 짐바브웨, 러시아
에스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오스트레일리아
한 나	뉴질랜드, 피지, 서사모아
사 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팔
권사회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북한
스데반회	콩고, 중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남선교회 연합 체육대회

-4월6일(토) 오후1시-

전도위원회(위원장 양경래 장로)는 회기간 친목을 도모하고 6월6일에 있을 강남교회 체육대회를 대비하는 남선교회 연합 체육대회를 4월6일(토) 오후1시에 개최키로 했다. 장소는 미정이며 경기종목도 추후 발표키로 하였다.

성경통독 사경회

교회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날 연휴기간 중 성경통독사경회를 갖는다.

기간은 11일(월)~12(화) 양일간이며 이번 성경통독사경회의 범위는 신약전서로 기억개정판 성경을 사용한다.

참가비는 10,000원이고 11일(월)~12(화) 양일 오전8시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개최되며 강사는 이종윤 목사를 비롯한 부교역자(이성득, 정운돈, 고경선, 이규경, 김운호, 윤영국 목사)와 지혜영, 이태훈전도사이다.

준비물은 성경(기억개정판)과 색연필 그리고 경건한 마음이다.

제21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4월1일부터 10주간-

한국교회 갱신연구원은 제21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일정을 발표했다. 정보화 테크노 시대의 목회전망이라는 주제로 1교시는 이종윤 목사의 시편연구가 있고 2교시는 10분의 외래강사가 주제에 따른 강의를 맡게 된다.

제1교시 (오후2:00~3:30)	제2교시 (오후3:50~5:20)
시편연구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4/1 미래과학의 과제 - 이용상 교수(명지대)
	4/8 첨단기술사회에 대한 성경적 조명 - 심상복교수 (충신대)
	4/15 의학윤리에 대한 목회적 진단 - 이승구 교수(국제신학원)
	4/22 생명공학 발달에 대한 신학적 응답 - 김균진 교수 (연세대)
	4/29 테크노시대의 교회교육 - 오인탁교수 (연세대)
	5/6 가상공간에 대한 목회적 검증 - 김영한 교수 (숭실대)
	5/13 멀티미디어시대의 목회방법 - 이성의 교수(연동교회)
	5/20 영상매체를 통한 예배에 대한 목회적 검증 - 주승중교수 (장신대)
	5/27 생태학적 신학과 목회 - 이정배 교수(김신대)
	6/3 정보화· 테크노 시대에 있어서 감동체험 - 김중기교수(연세대)

육사 졸업감사 및 파송 예배

-우리교회 후원으로-

해마다 육군사관학교 신입생 세례식을 주관한 우리교회는 올해부터 졸업생들이 임관하여 현지로 파송받는 졸업감사 및 파송예배를 후원키로 했다.

비전2020운동(위원장 이번생 장로)이 당회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2월27일(수) 육사 교회당에서 140명의 졸업생과 제학생을 포함한 9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종윤 목사의 설교가 있게 된다.

우리교회는 예배 후 이들을 환송하는 만찬과 식사가 정병으로서 지휘봉을 각각 선물 하기로 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42:8)

설날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모처럼 한자리에서 만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설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여기에 예배의 모범을 제시한다.

예배순서

인도: 가족 중 어른

- 목도 ----- 다함께
- 성시 ----- 시편133:1절-3절---인도자
- 찬송 ----- 460장-----다함께
- 기도(또는 사도신경)----- 가족 중 (또는 다함께)
- 성경봉독----- 에베소서5:1-14--- 인도자
- 설교-----"하나님을 본받는 자"----인도자
- 찬송-----404장-----다함께
- 주기도문-----다함께

"하나님을 본받는 자"

에베소서 5장 1~14

에베소서 5장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5:1)는 수준 높은 요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본받을 수 있으며, 유일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자존성,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유일성, 전지성, 편재성(무소부재)등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성품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 공의, 진실, 선함, 사랑, 동정심, 부드러움, 용서 등 인간도 소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마치 아들이 훌륭한 아버지를 본받아야 하고, 딸들이 자랑스런 어머니를 본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으려는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I. 용서하시는 사랑(Forgiving Love)을 본받읍시다.(4:32)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죄를 덮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를 필요로 하는 이를 위해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죄인임을 알고 고백한다면 모든 것은 변화할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우리 자신을 간주할 수 있는 사람은 형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II. 주는 사랑(Giving Love)을 본받읍시다.(5:2)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주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사랑하는 가족과 아름답고 훌륭한 세상에

살게 하였고 거기서 일하게 하는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사랑은 일반 은총만이 아닙니다. 용서하시는 사랑이 십자가로 설령 되듯 주는 사랑도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3:16)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신 것만이 아니고 죽는 자리에까지 내어주셨습니다.(빌2:5-10)

사랑은 무엇인가를 준다든가 때로는 포기하는 것으로 표현되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타인에게 나누어주는 삶 속에서 참된 생의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III. 산 사랑(Living Love)을 본받읍시다.(5:2)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사랑의 생활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산 사랑이란 실제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을 말합니다.(엡 4장)

거짓말, 어리석은 말, 더러운 말은 버리고 진실 되게 말하며 듣는 이에게 덕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4:25, 5:4-7, 5:29) 감정적인 노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5:26) 도적질 하지 말고, 구제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5:28) 그리고 모든 악을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하는 것(4:31-32)이 산 사랑을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영원한 사랑을 산 사랑이라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하기 쉽고,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완전치 못하고,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성도, 용서할 힘도, 주는 능력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1절을 쓴 바울은 빌립보서 4장13절에서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힘있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을 때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환자 심방을 받고 나서

박순옥 권사(4교구)



육신의 병으로 입당 예배 후 새 성전에 못 가본지 또 한해를 더해가는 중 지난 1월 17일, 이종윤 위임 목사님의 갑작스런 심방을 받고 새삼 주님의 사랑과 늘 돌보아주심을 느끼며 큰 힘과 위로를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르지 못하여 그간 성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의 무거운 짐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주신 요한복음 5장 8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하신 말씀은 나의 해진 내 심령에 새로운 힘과 용기가 되어 새 성전에 조만간 다시 나아갈 수 있으리란 소망을 가져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항상 나의 힘이 되어 주셨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느끼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사랑과 경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심방 해주신 권사님, 임원들과 동료 권사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 권사님, 집사님들, 사모여전도회 회원들, 교구 장로님, 다락방 식구들, 전화 수화기를 통하여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찾아오실 때마다 경성으로 만든 음식을 가져다주시는 권사님, 또 모든 성도님께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과 함께 여러 교우들의 큰 사랑에 빛진 자 됨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 어둔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전리의 말씀이 내 심령에 파고들어 날마다 감사와 찬송의 순간이 계속되기를 기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자리를 들고 일어나 새 성전에서 여러 교우들을 품안감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여가를 보내는 방법으로 영화를 많이 본다. 하지만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간파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지금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두 영화는 바로 "헤리포터와 마법사의 돌"과 "반지의 제왕"이다. 외국영화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다는 "타이타닉"의 기세를 누를 정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잤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 두 영화의 중요한 "소재"는 "마법"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비기독교적이라 우려가 많이 있다. 팬티지 장르에서 빠질 수 없는 소재가 마법이다. 마법은 말 그대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일이다. 팬티지에서는 마법이란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난다. 주님의 이름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런 말 그대로 마법이며 마술이다. 그런 누가 뭐라 해도 성전에 어긋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상상력은 무엇인가? 인간의 상상력은 그림 모두 헛된 것이며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고 상상력도 그 선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재"가 "마법"이라고 해서 그 모든 팬티지 장르의 예술작품들을 비기독교적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그렇다 면 단테의 "신곡", 괴테의 "파우스트"같은 이체는 세계 문학사의 걸작으로 남아있는 작품들 역시 사탄의 장난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단테와 괴테 모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두 작품을 읽어본 사람은 그 작품에서 "소재"로 마법이 사용되었지만 결국 작품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작품이었다.

하지만 그에 비해 "헤리포터와 마법사의 돌"과 "반지의

제왕"은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소제는 마법을 채용했지만 주제 자체는 인간의 구원이었던 파우스트와는 달리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우려할 만한 것들이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그에 대해 사도 바울은 말씀한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고전 8:4),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8장 9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전 8:13).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었으나 그 자유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대할 때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구원이 요청되는 문화임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불신자들이 보기에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아니 크리스찬들도 저런 영화를 보니 우리가 봐도 괜찮겠구나."란 생각이 들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 역시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자하는 한 영혼이기에 우리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세상의 모든 문화는 구원이 요청된다.

하인구(대학부)

새가족부 1팀 Talk! Talk! 토크 박스

-헌당은 이제 우리의 몫이죠-

세가족부 1팀 소속 새가족들과 당회원, 교사 34명이 한 자리에 모여 환영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같은 교회에 등록하고서도 새가족부내에서 같은 반이 아니라 서로를 잘 몰랐는데 한 식탁에서 먹을 때며 교회의 역사도 함께 들으며 한가족의 정을 뽐낼 수 있었습니다.

최정인 성도: 학교 다닐 땐 케플에 참석도 했는데 자원하여 교회에 나오는데 꼬박 62년이 걸렸어요. 누님 최금자 권사의 권유로 등록하게 됐는데 사실은 작년에 위장 완전 절제수술을 받고 하나님께 항복한 거지요. 저희 형제들의 간절한 소원이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었는데 내가 왜 진작 교회를 나오지 않았나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요.

김규순 성도: 18년간 섬기던 교회를 어떤 계기로 옮기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압니다. 먼저 저의 몸에 베어있는 진방진 것들이 서울교회에 와보니 금세 드러나서 회개하였습니다. 새가족부 장로님을 비롯한 전 교사들이 나를 배려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고 있어 보기에 아름답고 잘 훈련된 성도들이 많은 인상적인 서울교회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말하고 다닙니다. 그동안 저의 교회봉사가 형식적이었음을 고백하고 다니엘처럼 하루 세 번 회개의 기도하면서 어려운 문제들도 반 이상 해결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사라 성도: 20년 동안 회전을 다해 섬기던 교회를 떠나 서울교회에 왔으므로 교회의 한 분깃을 섬기고 싶어요. 이종윤 목사님의 기도 제목인 예배당 헌당이 이제 저희들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선배님들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 놓으셨으니 이제 남은 헌당은 저희 새가족들의 몫이라 생각하며 저희들도 한 부분을 감당하겠습니다.

김재진 성도: 신학교 교수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게 아이를 입교시킬 교회를 찾던 중 사랑하는 아들을 책임져 주실 목회자를 찾아 서울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등록하고 난 뒤 잘 정착하여 저희도 대구에서 서울로 이사왔습니다. 이혼으로 알고 있던 평신도의 교회 섬김에 대해 새가족부 교사들과 성도들을 대하면서 많은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헌신하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수정 성도: 남편(김재진 목사)이 얘기한 대로 서울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한석 성도: 초등학교 때 한 두 번 교회에 간 적이 있는데 작년 국제 아파트로 이사는 후 이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정정희 성도: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양홍 성도: 저희는 태어나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는데 모두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해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정연희 성도: 서울교회 건축되는 것 보며 완공되면 열심히 다녀와야 하고 결심했는데 참 부끄럽군요. 종교라고는 처음 가졌지만 보살핌으로 지난해 학습도 받게 되었어요. 이런 기회에 자주 참여하여 서먹서먹한 분위기 빨리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김순자 성도: 오늘 오경수 장로님 말씀대로 새가족의 기분을 털어내고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정정희 성도: 오래 전부터 이목사님에 대해 들어왔는데 직접 말씀을 듣고 나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Lisa Taylor: 아름다운 fellowship을 즐기며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랑을 함께 느끼게 되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느끼는 사랑의 감동이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박형주 성도: 신중히 교회를 선택하여 서울교회에 등록했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있지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어서 기도중이며 사명을 위해 준비중이요, 최근에 아버지께서 구원받고 서울교회에 등록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송영주 성도: 권구를 통해 서울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같은 입장의 사람들이 교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문지호 성도: 이목사님 방송 설교를 듣고 이 교회에 오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지난 주에 등록했습니다.

김상엽 성도: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조금실 성도: 저는 믿음이 아직 적으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의 속내까지 깨네놓고 교제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62년만에 교회로 발걸음 돌려주신 하나님께 큰 박수를 드렸고, 자녀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매의 아픔에 함께 울었고 직장을 구하는 형제의 기도에 함께 이면 했습니다. 예배당 헌당을 우리의 기도제목으로 정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알곡들을 예비해 두셨다가 한가족 삼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되기를 다짐하며



임상헌 장로(상담부 11교구)

서울교회 상담부는 2001년 4월 정식으로 발족되어 지난해 100여건 이상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올해도 부족한 팀의 일부 상담위원을 보충하여 보다 더 내실 있는 상담을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난 2월2일 교회에서 상담부의 전체 상담위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날 지도교역자(지혜영 전도사)로부터 상담위원 각자에게 주신 지식과 경험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 위하여 은사로 허락하신 것이고 따라서 상담위

원은 단순히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소극적 인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는 적극적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고 참석한 위원들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등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된 자를 치유하고 위로하시던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이 일을 감당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동시에 올해에는 상담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 상담시간과 상담방법을 변경하기로 하였는바,

1. 1부 예배 참석 성도들의 상담편의를 위하여 상담시간을 1부 예배 후 장년성경공부가 실제로 종료되는 11시30분에 시작하여 2부 예배 후인 오후 1시까지로 하고,
2. 현재 실시중인 즉시 면담방법에 의한 것도 계속하겠

귀한 시간이었다.

2부 기도회에서 우리는 1)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2)교회를 위한 기도 3)각 가정을 위한 기도 4)사업과 직장을 위한 기도 순서로 통성 기도를 하고, 각 제목마다 마무리 대표기도로 마무리하였다.

3부는 개인기도시간으로 30여분 정도 각 개인의 간구할 사항을 뜨겁게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 시간마다 큰 은혜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새 해에 베드로 남선교회를 기도원으로 인도하셔서 먼저 영적으로 무장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회원 모두가 맡은 직분, 받은 사명을 주안에서 잘 감당하리라 다짐한

으나 상담이 상담자와 상담위원의 시간 불일치, 상담자가 중복될 때 상담대기시간 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사전에 상담간사와의 전화예약을 통하여 상담위원과 직접 상담가능한 시간을 조정해 주기로 하였으며(주요의 상담안내 란에 상담예약을 위한 상담간사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성도들은 이 전화를 통하여 사전에 예약을 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상담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동시에 교회홈페이지에 등재하여 현재 실시 중인 인터넷 상담을 상담위원과 상담분야의 확충 등으로 보다 활성화하며

앞으로 여러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적극적인 홍보 및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다. 끝으로 이렇게 좋은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이종운 목사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모든 임역원,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베드로 남선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부흥 발전하여 주안에서 하나되고, 주안에서 승리하고, 주안에서 전진하여 주의 용사가 되어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베드로 남선교회 신년기도회를 마치고

장두현 집사(1교구)

교회를 출발하여 1시간여, 우리는 목적지 기도원에 도착하였다. 기도원에서 우리는 기쁜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한마음 한 목소리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베드로 전서 2:1-3을 본문으로 김운호 목사님을 통해 영·육간의 죄 사슬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회개하여 구원받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살아가자는 말씀을 받았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는

1부 안내위원 모임

송숙영 집사(12교구)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제는 봉사와 헌신의 기쁨에 더하여진 또 다른 은혜였습니다. 예배위원장 최종시 장로님과 부장 우지원 집사님을 모시고 지난 19일(토) 1부 안내위원 모임을 가졌습니다. 진정한 삶의 기쁨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가운데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아침을 열고 주일을 준비하여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최고의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우지원 집사님의 이야기에 모두들 공감하는 모습에서 우리의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작은 우리를 드러 말없이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서울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을 고향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경건한 예배분위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 속에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을 찬송하였고 각 가정의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밤이 깊었음에도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던 이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봉사와 헌신의 기쁨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셨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제를 더하여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엄마와 함께 하는 유아부 겨울성경학교

-학부모 세미나와 자모회 총회도 함께-

만0세부터 만4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서인 유아부는 교회설립 이래 유아부로서는 처음으로 성경학교를 개최하기로 하고 준비중이다.

이번 성경학교에는 성경동화,인형극,찬송 배우기,엄마랑 아기랑,성경학습,비디오 상영,공작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며 특히, 602호실에서 열리는 학부모세미나는 이종운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자녀를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바로 키울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을 공부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학부모세미나에는 유아부 뿐 아니라 자녀를 둔 부모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아울러 유아부의 자모회는 총회를 통해 제3대 자모회 임원을 선출한다. 유아부 자모회는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이들은 일년동안 교회와 유아부를 위해 기도할 책임을 갖게 될 것이다.

조대영 전도사 (유아부 지도)

†태신자 현황 (2월10일현재)

이강복 조현숙 이동순 전용환 조수일 전용섭 계능길 박영분 최주rak 이선자 양규준 이정희장형숙 이광용

†중등부 겨울수련회 일정 및 장소

주제: 하나님의 사람들
장소: 교회 501호(중등부실)
일시: 2월25-27 (3일간)
강사: 이종운 목사, 윤영국 목사

†사랑부 지휘자 모집

우리교회 장애인의 예배모임인 사랑부는 주의 사랑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지휘를 맡을 봉사자를 구하고 있다.

†음향실 근무자 모집

교회 음향실에서 근무할 전임직원을 찾고 있다.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컴퓨터 및 음향기기 취급 유경험자로 세례교인
†선교위원회 간사 임명
이인숙 권사 (1교구)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4일(목) 연세대 신입생 신앙수련회 개최설교를 한다.
- 득남: 박선경 · 최준환 성도
- 개업: 지성희 집사(2-7)서진산업 536-7898
- ☎ 금주의 식사제공: 백수남 집사 · 김영희 권사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2년도 성경학교 · 겨울수련회를 위하여
2. 구정(설)에 민족적으로 지을 죄 용서를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